

동아제약,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투자

동아제약은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연구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동아제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연구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9월29일 체결했다.

동아제약은 일본의 글로벌기업인 메이지세이카파마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시밀러 제조·연구시설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메디파크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MOU 체결식에서 “국내 최대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이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바이오시밀러 cGMP 공장·연구소>를 2012년 초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동아제약과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임상을 통해 <DA-3111>을 포함한 항체의약품을 개발·생산할 예정이다.

<DA-3111>은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으로, 동아제약은 2011년 말 바이오시밀러 전임상을 시작으로 임상단계를 거쳐 국내에서 독점적 판매승인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9/29>